

제4강 말씀을 자녀에게 심자 (2)

우린 성경 말씀을 가정의 중심에 두고 말씀으로 자녀들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것은 언제, 어떻게 가르치는 것이 좋은 것일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이 맞는 것인지? 충분한 것인지? 더 해야 하는 것은 없는지? 생활 상황 속에서 가르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일정한 시간에 가르친다면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 등 궁금증이 많습니다.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들이 자녀에게 성경 말씀을 심을 수 있는 기회임을 알았으니 이제 좀 더 구체적인 내용들을 생각해보겠습니다.

1. 내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 어떻게 가르칠까를 묻기 전에

어떻게 성경말씀으로 가르칠까? 어떻게 이 말씀을 자녀에게 가르치는 데 활용해야 할까? 바로 이런 질문에서부터 성경 말씀을 자녀에게 가르치는 일은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1) 생각하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공부하고, 공부하고, 또 공부하고.

주일/수요 말씀을 들을 때나, 전도집회를 들을 때, 조모임/구역 모임의 말씀과 간증을 들을 때, 월례 어머니 간증 등을 들을 때 생각하고 또 생각해보십시오. 들은 말씀을 어떻게 내 자녀들에게 들려줄 것인가? 나는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살아야 하며, 내 자녀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한다는 필요성을 깊이 자각하는 어머니는 자신을 둘러싼 모든 것이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소재와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점점 깨닫게 됩니다. 바로 어머니 자신이 제 1의 도구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아버지 실종 사건을 겪고 있는 자녀들은 대부분 함께 생활하는 어머니들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으며, 말씀을 가르치는 제 1의 임무도 어머니들에게 대부분 이양되고 말았습니다. 이 중요한 임무를 인식하는 어머니들은 이제 물러설 수가 없습니다. 생각하고, 생각하고, 또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공부하고 또 공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어머니 당신들의 상이 하나님 앞에 클 것이라는 것은 새삼 두말 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탁드립니다. 힘들겠지만 다시 일어서 주십시오. 어머니들의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결심이 필요합니다.

(시 34:11) 너희 소자들아 와서 내게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함을 너희에게 가르치리이다

(스 7:10)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2) 우리는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필요한 죄인임을 자각하는데서 출발해야 합니다.

내 자녀가 죄인의 씨,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죄인의 혈통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더럽습니다. 마음이 더럽고, 생각이 더럽고, 행위가 더럽습니다.

(시 51:5)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음이여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시 58:3~5) 악인은 모래에서부터 멀어졌음이여 나면서부터 결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사 1:4) 슬프다 범피한 나라요 허물 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렘 17:9)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마는

(사 59:7)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죄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사상은 죄악의 사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끼쳐졌으며 저희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저희는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곧 술사가 아무리 공교한 방술을 행할지라도 그 소리를 듣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막 7:21)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

더구나, 죄도 더럽지만 우리의 의도 더러운 피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사 64:6)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쇠파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 가나이다

이제 우리가 자녀들을 성경말씀으로 왜 끊임없이 가르쳐야 하는 지 이유가 더 분명해집니다. 이 죄인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합니까?

우리 자녀들은 구원을 받은 자녀이거나, 구원을 받지 않은 자녀이거나 둘 중 하나일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지 않은 자녀는 아직 어려서거나 혹은 어리진 않지만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입니다. 또한 구원을 얻은 자녀라고 할지라도 도통 생활이 말이 아닌 자녀여서 구원에 의심이 가거나, 자녀 본인이 구원의 확신이 없는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각 이유가 어떠하든 우리는 다음 이 세 가지를 꾸준히 가르쳐야 합니다.

Y 죄에서 해방되어 구원받도록 가르치기 (칭의)

Y 생활 속에서 구원을 이루도록 가르치기 (성화)

Y 몸의 구원을 소망하도록 가르치기 (영화)

그러므로 우리는 자녀가 구원을 얻었든 얻지 않았든 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생활 속에서 범하는 죄에 대해서 언제나 단호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죄는 불법입니다. 기록하신 하나님은 죄에 대해 아래와 같은 분명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겔 18:2,4)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비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함은 어찌이뇨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비의 영혼이 내게 속함 같이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요일 3:4)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구원을 받지 않은 자녀는 먼저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먼저 구원을 받도록 하는 것이 성경적 가르침의 최고 최선의 목표입니다. 그러므로 삶속에서 죄를 끊임없이 다루어야 하며 죄를 해결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음을 강조하십시오. 하나님께서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끊임없이 지적하시고, 끊임없이 회개를 촉구하셨습니다. 우리 역시 동일합니다. 죄를 지적하고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는 일은 자녀의 구원이 확실해지고 생활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맺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과정입니다. 자녀가 구원을 받았다고 말한다고 해서 마음을 놓지 마십시오. 항상 깨어 기도하시고 적절한 때를 포착하여 집회나 상담으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자녀의 거듭남의 문제는 다루어야 합니다.

미숙하고 나이 어릴 때 경험한 죄는 작고 가볍습니다. 죄에 대한 심각성과 구원의 필요성에 대한 깊은 자각이 없는 때에 복음을 접하고 예수님을 만났을 수 있습니다. 그 때 만난 주님은 그들에게 가벼운 주님일 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지요?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값싼 것으로, 값싼 구원, 값싼 은혜로 부주의하게 취급을 하는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입으로는 하나님의 구원을 잘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죄에 대해 친숙하고 세상이 즐겁기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죄와 복음, 거듭난 자의 생활을 가르침의 핵심 주제로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린 구원 얻은 자녀나 구원 얻지 못한 자녀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기록하심과 전지전능하심 등의 속성을 지속적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결국 죄를 멀리한다는 것임을 가르쳐야 합니다. 결국 우리의 가르침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마땅히 죄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분명하게 해야 하며, 살아가면서 죄로부터 분리되고 기록해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해야 합니다.

(전 11:9) 청년이여 네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네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과 네 눈이 보는 대로 좇아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전 12:13)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자녀들의 마땅한 본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 자녀들이 죄를 멀리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가르쳐야 합니다. 또한, 그 하나님 경외의 참된 실체가 자신의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임을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행위의 대가가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시시로 가르쳐야 하며 더 나아가,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함을 가르쳐야 합니다.

(롬 14:7,8)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고전 10:31-33)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모든 일에 절제해야 함을 자녀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위한 최고의 면류관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의 자세를 분명히 하고, 자녀들의 삶의 목적 또한 분명해지도록 살아야 합니다.

(고전 9:25)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달음질하기를 항방 없는 것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2. 성경적 책망으로 죄를 깨닫게 하기

(요 16:8)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책망은 교훈(teaching)을 통해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교훈을 통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바를 인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모두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자녀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하는 것은 부모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부모의 중요한 책임입니다. 그중에서도 성경으로 자녀가 죄를 깨닫게 하는 것도 부모의 책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 자녀들의 죄를 책망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양심을 두드리는 일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단지 부모가 자녀를 혼내줄 목적으로 성경 말씀을 듣게 된다면 오히려 자녀에게 성경 말씀을 곡해하게 할 것이며 자녀의 분노만을 돋우게 될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자신들이 죄를 범했다는 사실도, 변화가 없다는 사실도 인식조차 못한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 대부분이 자신이 죄를 범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자신들에게 변화가 필요하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딤후 4:2)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1) 책망이 중요합니다.

① 자녀와 하나님의 관계가 이 책망에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잠 6:23)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자녀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그것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② 책망은 회개와 변화의 선행조건입니다.

2) 그렇다면 말씀의 검을 예리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히 4:12)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① 말씀을 정확하게 인용하기

상황에 맞는 적절한 말씀을 찾아낼 수 있으려면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② 인용한 구절을 철저히 설명하기

말씀을 전하고 삶속에 적용하는 방법까지도 보여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던져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 가운데 아이의 마음에 그 말씀을 심는 것입니다.

3) 책망할 때 주의할 점

① 당신의 동기를 점검하세요.

(갈 6:1)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네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② 온유한 심령으로 책망하세요.(갈6:1)

온유는 책망의 필수조건입니다. 자녀에게 우리의 분노를 폭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③ 성경의 용어를 사용하여 죄를 경책하세요.

죄는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심리적 질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하나님을 거스리고 반역하는 것입니다.

④ 책망의 이유가 하나님을 거스르는 죄를 지었기 때문임을 분명히 전달하세요.

자녀가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지었을 때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죄는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네가 한 일 때문에 내가 얼마나 상심하는지 알아?"는 잘못된 표현입니다.

자녀의 행동이 하나님을 거스르는 죄라는 것과 그 일이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를 전달해야 합니다.

ex) 다윗 왕을 경책하는 나단 선지자

(삼하 12:3) 가난한 자는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양양 새끼 하나뿐이라 그 양양 새끼는 저와 저의 자식과 함께 있어 자라며 저의 먹는 것을 먹으며 저의 잔에서 마시며 저의 품에 누우므로 저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자녀들은 자신의 죄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라는 것과 **죄에 대한 판단 기준이 성경 말씀**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형처럼 해!", "엄마가 네 나이만 했을 때는……"이라는 표현처럼 **사람의 기준**이 아닙니다.

(고후 10:12) 우리가 어떤 자기를 칭찬하는 자로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저희가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⑤ 적절한 시간을 선택하세요.

책망의 최적 시기는 자녀가 당신의 말에 집중해서 들을 수 있을 때 혼자만 불러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죄목을 정확하게 하나씩 지적해야 합니다. 책망을 미루게 되면 그 행동이 그다지 심각한 범죄가 아니라는 인상을 심어주게 됩니다.

⑥ 적절한 용어를 선택하세요.

(잠 15:28)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⑦ 자녀의 양심에 호소하는 질문을 하세요.

⑧ 책망에 위로를 더해 주세요.

자녀에게 진실한 칭찬과 격려의 말은 아이에게 사랑을 느끼게 합니다. 한 가지를 책망하면 일곱 가지를 칭찬하는 식으로……

책망의 횟수를 줄이지 않으면서 칭찬의 횟수와 강도를 높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3. 성경으로 바르게 하기

“바르게하다”는 헬라어로 ‘에판오르프소’(epanorthoss)인데, 이것은 어떤 것을 세워주거나 다시 서게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인 우리는 성경으로 자녀 속에 있는 죄를 드러낼 수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성경 말씀을 통해 자녀가 다시 서게 하는 일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인가를 바르게 한다는 것은 교정의 의미를 가지며 잘못되어 있는 상태를 올바른 상태로 바꾼다는 뜻입니다.

성경은 아이의 인생에 잘못된 부분을 해결해주기에 유익합니다. 당신의 자녀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성품과 일치하지 않는 태도, 행동, 사고방식, 동기들을 바르게 할 수 있는 자원이 성경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바르게 함의 개념을 조금 자세히 생각해보면 이 과정이 **회개, 고백, 용서, 배상, 죄를 버림, 점검, 회복**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 회개

회개라는 단어는 문자적으로 “마음을 바꾸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바르게 함의 출발점입니다. 책망의 일차적 변화가 마음의 변화이고, 마음의 변화가 삶의 변화로 가는 첫 걸음입니다. 진정으로 회개하는 마음이라면 하나님을 거슬러 범죄했다는 사실에 대한 후회가 있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진정으로 회개하는 마음이라면 삶 가운데 회개에 적절한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신념과 태도, 행동에 대한 생각의 변화입니다.

성경을 사용하지 않고는 자녀의 마음에 진정한 회개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르게 함의 과정에서는 아이에게 성경적 근거를 설명해주는 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이에게 말씀을 잘 가르쳐야 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롬 8:4)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2) 고백

신약성경에 나타나는 고백(confession)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호몰로게오’(homologeō)인데, 문자적으로 ‘동일한 것을 이야기하다’는 의미입니다. 책망이 성공적이었다면 아이는 부모가 기소한 죄목을 인정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가 하나님께 대한 범죄임을 인정(고백)할 것입니다. 또한 고백의 주된 목적은 잘못을 저지른 그 사람 앞에 자신의 죄를 인정함으로 용서와 화해를 구하는 것입니다.

3) 용서

일단 죄를 고백했다면 이제는 자신의 범죄로 피해를 입은 모든 사람들에게 용서(forgiveness)를 구할 차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며 우리의 죄를 기억조차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들을 그리스도의 보혈 아래 덮으셨습니다. 그래서 회개, 고백, 용서의 과정 없이 아이의 행동을 바르게 하려는 시도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은 헛수고에 불과합니다. 어려서부터 회개와 고백, 용서의 과정을 가르쳐 주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치는 최선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4) 배상(잊혀진 명령)

우리는 결단코 하나님께 우리의 죄 값을 대신하여 무엇인가를 되갚아줄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외에 사람에게 빚을 진 경우는 다릅니다. 빚을 갚을 수 있다면 갚아야 한다는 성경의 법은 결코 폐지되지 않았습니다. 바르게 함의 과정에는 반드시 손해를 끼친 사람에 대한 배상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꼭 기억할 것은 적절한 성경본문을 함께 가르침으로써 배상의 법칙이 부모인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5) 죄를 버림(벗어버림)

(잠언 28:13)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죄는 반드시 놓아버려야 하며, 떠나야 하며, 내버려야 합니다. 죄를 놓치 않으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방해하며, 바르게 함의 과정이 더 이상 진행될 수 없도록 방해합니다. 죄악을 버리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눈을 감아주시리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목표를 향해 성공적으로 달려가도록 허락해 주시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기대입니다. 죄를 버린다는 개념은 신약 성경의 죄를 ‘벗어버린다’는 개념에 상응합니다.

6) 점검

점검(accountability)은 죄를 버림의 또 다른 핵심 요소입니다. 만일 아이 자신 이외에 아이의 행동을 점검해 주는 사람이 없다면 그 아이는 자기 자신만이 자신을 점검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라는 잘못된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만일 부모인 우리가 아이의 행동을 점검해 준다면 죄의 심각성을 아이에게 지속적으로 상기시켜 줄 수 있습니다. 어느 때라도 일의 진척상황에 대해 부모가 질문할 수 있다는 의식이 아이로 하여금 죄의 유혹에 굴복하지 못하게 하는 강한 제어 장치가 될 것입니다.

7) 관계회복

죄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동시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망쳐 놓습니다. 모든 관련 당사자들이 회복을 위한 성경적 시도가 있기 전까지는 바르게 함의 과정이 완료되지 않습니다. 회복이란 이제 그 사람을 회개하고 용서받은 사람으로 이해하고 대우한다는 의미입니다. 죄를 지은 자녀들 역시 회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로, 그들이 죄를 범한 사람에게로, 그리고 자신들의 부모에게로 회복되어야 합니다.

4. 훈련에 의한 의로 교육하기

교육함(paideiva, 파이데이아)은 가르치다, 훈련하다, 교육하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는 징계를 포함한 교육의 형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익숙해 질 때까지 거듭 반복해서 이루어지는 교육으로 징계를 수반하는 훈련과 말로 하는 훈계가 포함되는 것입니다.

(잠 29:15)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입의로 하게 버려두면 그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자녀 양육은 한 순간 변화된 모습을 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딤후 4:7,8)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법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해야 할 훈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암송 훈련

자녀를 의로 교육함에 있어 이보다 효과적인 방법은 없습니다. 더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면화한 자녀일수록 하나님의 성령은 그만큼 더 많은 자원을 가지고 그 아이의 성화를 위해 일하실 수 있습니다. 성령의 가장 중요한 무기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해주어야 합니다.

말씀 암송은 자녀를 의로 교육하는 데 여러 가지 유익을 제공합니다.

첫째, 현재 드러나는 문제를 바르게 하는 데 효과적이며, 죄를 벗어나게 하는데 유익합니다.

둘째, 새로운 습관(덧입음의 과정)의 개발을 돕습니다.

셋째, 장래에 드러날 수 있는 새로운 문제를 미리 예방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많은 아이들이 암송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이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소원을 불러 넣어주기만 한다면 해결됩니다. 방법은 부모가 삶의 상황 속에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성경 한 구절을 암송하면 하나님의 생각 한 부분을 암송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한 단락 혹은 한 장 전체를 내면화하며 암송하면 저절로 하나님의 사고 패턴을 암송하는 것입니다.

2) 묵상 훈련

묵상은 받아들이기는 했으나 미처 우리의 성품으로 녹아들지 못한 진리를 우리의 마음 깊이 못 박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기만 할 때에는 그 진리를 그저 지적으로 혹은 추상적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 때에는 그 진리가 제대로 소화되지도 못하여 우리 존재의 일부가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묵상을 하면 이 진리가 우리 인격의 일부분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묵상은 영혼과 진리의 대면입니다. 또한 진리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여 깨닫고 소화하여 마침내 영혼을 변화시킵니다. 묵상의 결여는 무지하고 불안정하며 열매 없는 삶을 가져온다.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는” 주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3) 부모의 정확한 지시와 그에 따른 순종 훈련(엡 6:1)

자녀들은 부모가 무엇인가를 지시하는 그 순간 즉각적으로 순종하도록 훈련되어야 합니다. 지연된 순종은 불순종입니다. 물론 아이들의 항의를 허용해 줄 수 있는 시간과 장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의 첫 번째 지시에 순종하지 않아도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식의 암시가 지속된다면 즉각적인 순종을 배우지 못하고 순종을 가능한 지연시키도록 훈련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것은 불순종입니다.

성경은 자녀들의 순종훈련에 아주 유익합니다. 성경에는 순종의 책임을 명하는 말씀들이 많습니다. 부모는 아이들이 부모의 말에 순종하지 않을 때마다 아이의 행동이 성경의 어떤 명령을 어긴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4) 성경적 사고와 표현의 생활화 훈련(눅 6:45)

아이들을 그리스도인처럼 행동하도록 훈련시키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사고 방식과 동기 유발을 훈련시켜야 합니다. 사람은 마음속에 있는 것을 입술로 말합니다.

(눅 6:45) 선한 사람은 마음의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의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이의 사고와 동기를 판단할 수는 없으나 아이의 말을 통해 그 마음속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부모는 적절한 질문과 대화를 통해서 아이의 마음속에 숨어 있는 죄의 문제를 아이 스스로 성경적으로 진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잘 이루어지면 아이의 생각과 동기의 변화까지 도울 수 있습니다. 그러자면 그리스도인의 생각과 동기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인 성경을 통해야만 합니다. 성경에서 보다 고명한 생각, 보다 깨끗한 동기를 찾아내어 아이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어떻게 하면 보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소원을 계발할 수 있는가를 함께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시 19:7,8)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